

“상조 가입하면 가전제품 드려요”… 시너지 효과 ‘톡톡’

교원라이프, 50만 구좌 돌파

결합상품 출시 후 매년 2배 성장

상조상품과 생활가전이 만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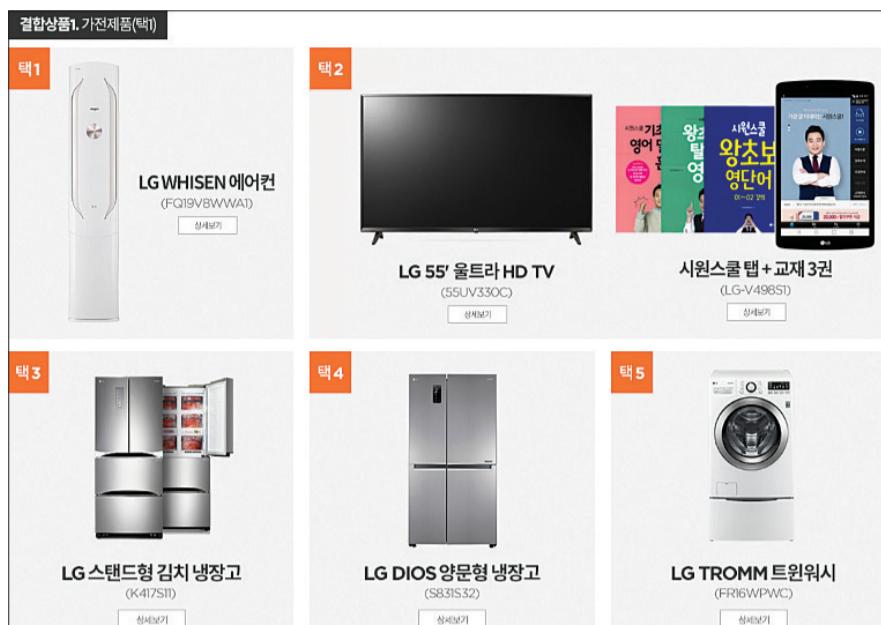
상조에 가입하고 냉장고, 세탁기, TV 등 필요한 가전도 구입할 수 있는 ‘1석2조’ 상품이 대세로 떠오르면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원그룹의 상조회사 교원라이프는 최근 50만 구좌를 넘어섰다.

교원라이프는 2011년 당시 ‘물망초’를 선보이며 초기 6800구좌로 상조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을 시작한지 7년만인 2017년까지 43만 구좌를 달성하며 연평균 11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7만여 명의 회원을 새로 끌어들이며 50만 구좌를 돌파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상조와 가전의 결합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교원라이프는 2015년부터 LG전자와 손잡고 ‘상조서비스+가전제품’의 결합상품을 선보



상조서비스도 받고 가전제품도 얻을 수 있는 ‘결합상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하고 있다. 교원라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였다.

이후 가입자 10명 중 9명은 ‘꿩 먹고 알도 먹는’ 이들 결합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2만9900원씩 200회를 납입하는

교원라이프 ‘다드림 프리미엄299S’ 상품의 경우 LG전자의 휴센에어컨, 55인치 울트라HD TV, 스텠드형 김치냉장고,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트롬 트윈워시 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가전의 경우엔 ‘통돌이세탁기(16kg)+코드제로 A9청소기’ 등 2가지를 동시에 고를 수도 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후발 주자지만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 기업인 교원그룹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정도를 지키며 꾸준하게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은 노력이 50만 구좌 돌파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교원라이프는 고객 중심의 다양한 상조서비스, 장례문화원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장례 전 영역에 걸쳐 ‘토탈 라이프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례 문화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상품은 만기시엔 납입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애사가 발생해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중도 해약할 경우엔 미리받은 가전제품에 대한 금액의 일부분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입시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결합상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명품 녹아든 포터블 스피커 ‘LG 엑스붐 고’

英 메리디안의 첨단 음향기술 탑재

풍성한 저음·명료한 고음의 조화



LG전자는 메리디안오디오(메리디안)의 첨단 음향기술을 탑재해 오디오 기능을 극대화한 포터블 스피커 ‘LG 엑스붐 고(XBOOM Go)’ 3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리디안은 영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기업으로 스피커는 물론 디지털 사운드 처리 기술, 디지털 음원의 포맷과 규격들을 개발해왔다.

LG전자는 포터블 스피커 제품군에 새로운 브랜드명인 LG 엑스붐 고를 적용했다. ‘엑스붐’은 LG전자의 고출력 오디오 제품군 브랜드로 파워풀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엑스붐에 고를 추가해 활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LG 엑스붐 고의 ‘PK 시리즈’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저음과 명료한 고음으로 공간을 꽉 채우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PK3’과 ‘PK5’는 음손실을 방지하는 블루투스 전송 기술인 aptX HD 오디오 코덱을 탑재, 24비트 고음질 음원을 원본 그대로 재생할 수 있다. 한 손에 들 수 있는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하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생활방수 기능도 갖췄다. 스피커 전면에 LED 조명을 탑재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수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클리어 보컬 모드’와 풍부한 중저음을 강화 수 있는 ‘인핸스드 베이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PK7은 최대 22시간, PK5는 최대 18시간 연속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PK3’는 수심 1m 깊이에서 최대 30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방수 등급 IPX7을 충족해 사용자는 수영장과 육조 등 물이 떨 수 있는 장소에서도 걱정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다. ‘PK3’는 최대 12시간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PK3는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LG CNS, 日에 43만평 태양광발전소 구축

페골프장 활용… 축구장 200개 크기

사업비 1600억 규모·19개월간 진행

LG CNS가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의 27홀 규모 폐 골프장을 활용해 축구장 200개 크기인 43만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했다.

31일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 발전소 준공식에는 시가 마사히코 미네시 건설농림부 부장, 발주처 캐나디안솔라제프로이 사장, LG CNS 에너지신산업추진단 하태석 상무, 미네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구축과 운영을 합해 총 사업비 약 1600억원 규모로, 2016년 11월부터 19개월 동안 진행됐다. 규모는 56㎿급의 규모로 연간 62G 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미네시 전체 약 1만 가구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미네 태양광발전소는 폐 골프장 27개 흘 위에 태양광 패널 약 17만장이 설치돼 있다. 특히 미네시 주변지역 공사업체와 근로자 채용을 통해 공사기간 동안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 태양광 발전소.

/LG CNS

약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상권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LG CNS는 발전소 사업 특성상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미네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원 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주민들을 조정해 발전소 현장 견학,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지역사회 와의 적극적 교감으로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LG CNS는 국내 IT서비스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전기·건설·토목 등 일본 특정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태

양광 사업의 텐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수행 기술력과 인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일본 내 태양광 투자자들로부터 공사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LG CNS는 올해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전력 생산과 저장에 빅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최적화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에너지 최적화 센터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LG CNS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DAP’에서 운영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대한항공, 오늘부터 ‘노 타이 근무’

국내외 男 임직원… 제복 착용 제외

대한항공이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노 타이(No Tie) 근무를 실시한다.

노 타이 근무 대상은 국내외 전 남자 임직원이며 운항 및 객실 승무원과 접객 서비스 직원 등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직원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해외지점은 각 지역의 기후특성에 맞춰 노 타이 근무 여부

를 결정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하계 시즌 노타이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에 힘쓰고 있다.

대한항공은 연료 효율은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몽골, 중국 등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는 글로벌 플랜팅 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친환경 녹색경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30일 하얼빈 북방항공 직업기술학원에서 하얼빈 북방항공 직업기술학원과 서비스 특별교육 MOU를 맺었다. 이날 MOU 체결식에 아시아나항공 구자준 캐빈본부장(오른쪽), 하얼빈 북방항공 직업기술학원 명베이밍 학교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 中 항공학교에 노하우 전수

교수와 학생들을 서비스 특별교육에 입과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구자준 캐빈본부장, 중국 하얼빈

북방항공 직업기술학원 명베이밍 학교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중국 하얼빈 북방항공 직업기술학원은 항공서비스전공을 포함한 48개 학과로 구성된 8000여명 규모의 대형 학교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승무원 지망생들에게 특별서비스교육을 진행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선진 서비스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교육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다.

구자준 아시아나항공 캐빈본부장은 “하얼빈 북방항공 직업기술학원에 직접 와서 들려보니, 훌륭한 시설에 학생들도 열의에 차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세계적인 서비스 노하우를 습득한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교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